

경기장·숙박시설 현실적 '최적 대안' 제시 신뢰도 높여

■ 1차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과 광주시 평가

각계 전문가 참여 전문성 높이고 차별화 스테판 버그 위원장 "내용 충실하고 훌륭"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프레젠테이션(PT)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등 대회 개최 도시로서 역량을 한껏 선보였다."

광주시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 실사 첫날인 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첫 PT에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광주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했다.

이번 PT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대회 개최 역량에서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경기장 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가 3차원 컴퓨터 영상과 위성사진을 통해 풍부하게 소개된 점도 이번 PT의 특징이다.

이날 실사를 마친 스테판 버그 등 실사위원들은 "유치신청서 내용이 충실하고, PT내용도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아나운서 태인영씨의 사회로 진행된 PT에서 광주시는 의료, 숙박, 체육, 교통, 소방 안전 등에 대해 대만 타이베이 등 경쟁 도시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의료·도핑 테스트 부문에서는 전남대학교의대 윤택림(정형외과)교수, 숙박 분야에서는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이희승 교수가 설명에 나서 실사단에게 깊은 신뢰를 심었다.

이 교수는 현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 건립중인 350실 규모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비롯해 라마다 호텔, 무등파크 호텔 등 광주의 숙박 인프라와 비전을 제시했다.

U대회 스포츠 시설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신기호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광주·전남 지역 체육시설과 인프라의 강점, 한재만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수송 부문의 장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인천~광주공항 전세기 운영을 통한 빠르고 간편한 입국, 편리한 세관 절차, 월드컵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특히 실사단의 중점 점검 분야인 스포츠 인프라에서 광주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요소인 경기장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또 이는 실현 불가능한 대형경기장 신축을 공약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최적 대안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최고의 대회 운영 관리 계획과 최대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촌, 경기장, 교통수송 여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재정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신축 중인 국제적인 규모의 동산대체육관, 목포 국제 축구센터, 화순실내체육관은 U대회 준비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준비된 광주'를 충분히 부각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서 U대회 17개 주 종목용 치를 경기장으로 광주시가 제시한 경기장 26곳 가운데 23곳이 이미 검증을 마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 경기장은 전국 체전



과 장애인체전, 각종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거치는 등 시설면에서 손색 없다는 평가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심어준

것이 이번 PT의 가장 큰 성과다"며 "실사단이 7일에는 광주시가 제시한 경기장 등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한층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회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6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실사단 광주공항 환영행사 표정

대학생들 주축 400여명 차분한 환대 "1년만에 다시 찾은 광주 고향 온 듯"

"1년 만이지만 어제 바로 온 듯 친근합니다. 일정에 맞춰 꼼꼼히 실사를 벌이겠습니다. 반겨주시는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광주의 유니버시아드 도전 성과의 열쇠를 쥔 스테판 버그 FISU 실사단장(FISU 부위원장·스웨덴)을 비롯한 실사단 일행이 6일 오후 4시 45분 전세기 편으로 광주공항에 도착했다. 간단한 질의응답을 마친 이들은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에서의 총회에 참석했던 대학생이 주축이 된 환영인파 400여 명에게 시종일관 미소를 보이며 환대에 답했으며, 박광태 시장 등 시 관계자와 함께 리무진 버스에 오르는 것으로 광주 실사 첫 일정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환영 인파와 다소 떠들썩했던 이벤트보다는 차분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내실있는 준비'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지난해 국내선, 국제선 환승에 불편을 겪었던 실사단을 위해 전용기를 마련, 9일 되돌아가는 항공편을 광주에서 인천까지 직항하도록 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기도

했다. 이날 실사단 환영을 위해 공항에 나온 홍민호(전남대 경영학과 4년·27세)씨는 "지난해 실실했지만, 올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가 뜻을 이룰 것을 믿는다"고 했으며, 김복남(61·남구 방림동)씨는 "광주를 위해 이번 만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웰컴 피수(Welcome FISU)"를 외쳤다.

실사단은 이날 오후 5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사 일정 및 스포츠시설 기반시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7일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7일 오전 대회운영 계획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실사단은 U대회 개최 시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서는 기념식수를 하고, 곧바로 빛고을체육관, 호남대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오후부터 전남으로 장소를 옮겨 나주 동산대체육관, 목포 국제축구센터 등을 둘러본 실사단은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장인 스테판 버그 집행위원 일행이 6일 오후 광주 공항에 도착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열리는 공식환영만찬에서 명예시민증을 받고, 전남대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를 참관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사단에게는 광주시가 U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스테판 버그 단장 등 실사위원 5명을 청와대로 초청 면담을 갖고 "광주는 매우 특별한 도시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

시"라며 U대회 유치후보 도시로서 광주의 문화·역사 인프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뒤 "터키, 일본, 브라질 실사단원의 출신국가와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광주시가 U대회 유치전에서 캐나다에 드문턴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번 해외 순방 때 (캐나다에) U대회 유치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할 걸 그랬다"고 언급,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두번째 도전 광주 준비 잘 돼 기대 커"

U대회 실사 히사토 이가라시씨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FISU 집행위원 히사토 이가라시(57)씨. 그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지만, 유치 희망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조금은 부담을 느낀 듯했다. 그는 광주의 인상적인 환경과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광주를 찾은 소감을 대신했다.



광주의 두 번째 도전에 대해 히사토씨는 "준비가 잘 돼 있어 기대가 크다"며 "두 번째 방문이지만, 공항에 첫 발을 내딛을 때는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실사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광주가 개최국이 돼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등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며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준비상태는 극히 좋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남자체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히사토씨는 현재 일본 나가타대학 스포츠과 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